

아모스서의 구조와 메시지: 이스라엘의 심판과 야웨의 주권을 중심으로*

김래용(협성대)

1. 서론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위해 아모스서는 구약의 다른 예언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모스서는 열방에 관한 심판 신탁(암 1:3-2:16)으로 메시지를 시작한다. 이것은 다른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다. 대부분의 구약 예언서는 열방 신탁을 중간에 배치하거나(사 13-23장, 겔 25-32장), 혹은 뒤쪽에 배치한다(렐 46-51장). 그런데 아모스서는 열방에 관한 심판 신탁을 가장 앞쪽에 배치하고 있다. 둘째로 아모스서는 구원 신탁(암 9:11-15)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다. 앞에서 길게 심판 신탁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구원 신탁이 추가된 것과 같은 모양새를 띤다. 전체적인

* 이 연구는 2025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5-0010).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구원 신탁이 없어도 아모스서의 메시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구원 신탁이 후대에 추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로 아모스서는 환상(암 7:1-9:10)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한다. 환상이 심판의 메시지를 위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특이하게도 아모스서는 5개의 환상을 마지막에 나열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한다. 신탁 양식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개하다가 환상 양식으로 바꾸어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넷째로 아모스서는 3-6장을 2개의 단락(암 3-4장; 5-6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문구를 배치하고 있다. 아모스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 이 말씀을 들으라’(שְׁמְעוּ אֶת-הַדְּבָר הַזֶּה בְּנֵי יִשְׂרָאֵל)는 문구가 배치되고, 아모스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 이 말씀을 들으라’(שְׁמְעוּ אֶת-הַדְּבָר הַזֶּה בְּנֵי יִשְׂרָאֵל)는 문구가 배치되어, 아모스 3-6장을 3-4장과 5-6장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처럼 아모스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양식(열방에 관한 심판 신탁,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신탁과 구원 신탁, 환상)과 독특한 문구(‘이 말씀을 들으라’)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아모스서의 구조를 다양하게 구분하였다. 첫째로 일부의 학자들은 양식을 중심으로 아모스서를 2개의 구조로 나누었는데, 바이저(Artur Weiser), 스미스(Billy K. Smith), 반 더르 발(Adri van der Wal)과 같은 학자들은 아모스서를 말씀(암 1-6장)과 환상(암 7-9장)이라는 2개의 구조로 나누었다.¹ 둘째로 일부의 학자들은 양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아모스서를 더 세분하여 3개의 구조 혹은 4개의 구조로 나누었다. 3개의 구조로 나누는 학자들

1 Artur Weiser, *The Old Testament: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1), 243-244; Billy K. Smith and 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126; Adri van der Wal, “The Structure of Amo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6 (1983), 107-113.

을 살펴보면, 스미스(Gary V. Smith)는 아모스서를 열방에 대한 전쟁 신탁(암 1:3-2:16),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입증(암 3:1-6:14), 종말에 대한 환상들과 권고들(암 7:1-9:15)로 나누었으며,² 쿼터(Allen R. Guenther)는 아모스서를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암 1:3-2:16), 언약 소송(암 3:1-6:14), 종말에 대한 환상(암 7:1-9:15)으로 나누었다.³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블(Paul R. Noble)은 아모스서를 열방에 대한 야웨의 말씀(암 1:2-3:8), 교차구조로 된 심판 신탁(암 3:9-6:14), 이스라엘의 파괴와 재건(암 7:1-9:15)으로 나누었고,⁴ 하퍼(William R. Harper)는 아모스서를 신탁들(암 1:3-2:16), 설교들(암 3:1-6:14), 환상들(암 7:1-9:8b)로 나누고, 아모스 1장 1-2절과 9장 8c-15절을 후대의 추가로 보았다.⁵ 아모스서를 1-2장, 3-6장, 7-9장의 3개의 구조로 나눈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스투어트(Douglas K. Stuart)는 아모스 1-6장을 첫 번째 신탁 그룹으로 나누고, 아모스 7-9장을 나누어 내러티브를 가진 환상(암 7:1-8:3)과 마지막 신탁 그룹(암 8:4-9:15)으로 나누었다.⁶ 반면에 앤더슨(Francis I. Andersen)과 프리드만(David N. Freedman)은 아모스서를 4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열방과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신탁을 가진 재앙의 책(암 1-4장), 재앙과 애가(암 5-6장), 환상의 책(암 7:1-9:6), 에필로그(암

2 Gary V. Smith, *Hosea, Amos, Mic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225.

3 알렌 R. 쿼터, 「호세아·아모스」(임요한, 최태선 역), (논산: 대장간, 2018), 381-384. 원제는 Allen R. Guenther, *Hosea, Amos* (Waterloo: Herald Press, 1998).

4 Paul R. Noble, "The Literary Structure of Amos: A Thematic Analys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4 (1995), 209-226.

5 William R. Harp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Amos and Hosea* (Edinburgh: Clark, 1905), cxxxii.

6 더글라스 스투어트, 「호세아-요나」(김병하 역), (서울: 솔로몬, 2011), 524-525. 원제는 Douglas K. Stuart, *Hosea-Jonah* (WBC 31;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7).

9:7-15)로 나누었다.⁷ 셋째로 일부 학자들은 표현이나 패턴을 중심으로 아모스서를 3개나 4개의 구조 혹은 7개의 구조로 나누었다. 코흐(Klaus Koch)는 주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아모스서를 3개의 구조로 나누었다. 그는 ‘이것을 들으라’(암 3:1, 13; 4:1; 5:1; 8:4), 송영들(암 1:2; 4:13; 5:8; 9:5-6), 이스라엘 백성(암 3-4장), 이스라엘 집(암 5:1-9:6)과 같은 표현에 기초하여 아모스서를 열방에 대한 말씀(암 1-2장), 신적 훈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암 3-4장), 장례 애가로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암 5:1-9:6)로 나누었으며, 아모스 9장 7-15절을 일종의 추가로 보았다.⁸ 오코넬(Robert H. O’Connell)은 ‘N(숫자 3 혹은 7)+1의 점층적 구조’를 중심으로 아모스서를 4개의 구조로 나누었다. 즉 ‘7개의 짧은 심판 선언(암 1:3-2:5)과 1개의 긴 심판 선언(암 2:6-16),’ ‘3개의 심판 신탁(암 3:1-5:17)과 1개의 이중 재앙 신탁(암 5:18-6:14),’ ‘3개의 표징 환상(암 7:1-9; 삽입 암 7:10-17)과 1개의 표징 환상(암 8:1-2),’ ‘3개의 종말론적 심판(암 8:3-14; 삽입 암 9:1-10)과 1개의 종말론적 약속(암 9:11-15)’으로 나누었다.⁹ 림버그(James Limburg)는 ‘7과 7+1의 패턴’을 중심으로 아모스서를 7개의 구조(암 1:1-2; 1:3-2:16; 3:1-15; 4:1-13; 5:1-6:14; 7:1-8:3; 8:4-9:15)로 나누었고,¹⁰ 도르시(Dorsey)는 구술적 및 청각적 표시를 기준으로 아모스서를 7개의 구조(암 1-2장; 3장; 4장; 5:1-

7 Francis I. Andersen and David N. Freedman, *Amo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89), 23-72.

8 Klaus Koch, *Amos: untersucht mit den Methoden einer strukturalen Formgeschichte 1* (Kevelaer: Butzon & Bercker, 1976), 1-292; Klaus Koch, *Amos: untersucht mit den Methoden einer strukturalen Formgeschichte 2* (Kevelaer: Butzon & Bercker, 1976), 1-159.

9 Robert H. O’Connell, “Telescoping N+1 Patterns in the Book of Amos”, *Vetus Testamentum* 46 (1996), 56.

10 James Limburg, “Sevenfold Structures in the Book of Amo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 (1987), 217-222.

17; 5:18-6:14; 7:1-8:3; 8:4-9:15)로 나누었다.¹¹

이처럼 학자들은 아모스서를 양식, 내용, 표현을 중심으로 2-7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이들은 각 단락의 역할이나 각각의 단락들 사이의 관계성 및 각 단락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에 관심하지 않았다. 양식과 내용과 표현을 통해 아모스서를 다양하게 구분하였지만, 막상 아모스서의 각 단락이 메시지 전개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였다. 분명히 아모스서가 열방 신탁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열방 신탁 이후에 이스라엘에 관한 다양한 심판의 말씀과 5개의 환상이 열거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한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구원 신탁으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들은 이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모스서를 양식과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5개의 단락(암 1:1-2:16; 3-4장; 5-6장; 7:1-9:10; 9:11-15)으로 나누고, 이러한 5개의 단락이 아모스서의 전체 메시지 전개를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5개의 각각의 단락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야웨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면서¹² 이스라엘 심판의 필연성을 점층적/단계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각 단계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야웨의 주권을 부각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11 David A. Dorsey, "Literary Architecture and Aural Structuring Techniques in Amos", *Biblica* 73 (1992), 329-330.

12 볼프(Hans Walter Wolff)는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로 야웨, 이스라엘, 열방을 다룬다. Hans Walter Wolff, *Joel and Amo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100-106.

2. 아모스서의 5개의 단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심판과 야웨의 주권

1) 아모스 1-2장: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성과 야웨의 주권

아모스 1-2장은 아모스서의 전체 메시지의 제1단계를 구성한다. 야웨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1단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열방의 죄악과 열방에 대한 야웨의 심판이 열거된다. 열방의 죄악에 대한 열거는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¹³ 열방에 대한 야웨의 심판은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7개의 열방의 죄악과 야웨의 심판을 앞에 배치하고 뒤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배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야웨께 심판받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성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성은 7개의 열방의 죄악의 열거를 통해 강조된다. 7개의 열방의 죄악을 앞에 배치하고, 뒤에 이스라엘의 7개의 죄악을 배치하여 둘을 비교함으로써 이스라엘 죄악이 열방의 죄악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의 죄악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인신매매의 죄악이다. 열방의 인신매매와 이스라엘의 인신매매를 비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악을 부각하는 것이다. 7개의 열방 중에 특별히 가사와 두로가 인신매매했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가사)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암 1:6b). ‘이는 그들(두로)

13 요르크 예레미아스, 「아모스」(채홍식 역), (서울: 성서와함께, 2006), 35. 원저는 Jörg Jeremias, *Der Prophet Amo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암 1:9ba). 여기에서 인신매매를 위해 **נָקַד**(사가르/넘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전쟁포로를 넘겼다는 의미가 강하다.¹⁴ 전쟁 포로를 노예로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신매매가 이스라엘에서도 행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7개가 열거되는데(암 2:6-8) 이 중에 2개가 인신매매와 관련된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켄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עַל-מִכְרָם בְּכֶסֶף צְדִיק וְאִבְיוֹן בְּעֵבֶר וְנַעֲלִים) 2:6b 절). 여기에서는 **נָקַד**(사가르/넘겼다) 대신에 **מָכַר**(마카르/팔았다)를 사용해 매매의 성격을 더 부각한다.¹⁵ 게다가 ‘의인’과 ‘궁핍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죄가 없는 대상(의인)과 보호의 대상(궁핍한 자)인 동족을 매매하는 잔악한 행위를 실행에 옮겼음을 강조한다.¹⁶ 또한 ‘신 한 켄레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동족을 매매하는 죄악을 저질렀음을 강조한다.¹⁷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열방보다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다.

둘째로 잔인함의 죄악이다. 열방의 잔인함과 이스라엘의 잔인함을 비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악을 부각하는 것이다. 7개의 열방 중에 다메섹, 에돔, 암몬, 모압의 죄악은 잔인함과 관련된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하였고(암 1:3b), 에돔은 칼을 가지고 그의 형제를 추적하고 그의 진노를 영원히 품었으며(암 1:11b), 암몬은 그들의 지

14 Helmer Ringgren, “נָקַד”,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Vol. X*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150.

15 Edward Lipiński, “מָכַר”,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Vol. VI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291-296.

16 Bruce C. Birch, *Hosea, Joel, and Amo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85-187.

17 더글라스 스튜어트, 윗글, 571.

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고(암 1:13b),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암 2:1b). 철 타자기, 영원한 분노,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름,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든 행위는 잔인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열방의 잔인함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⁸ 그런데 이들의 죄악은 타국인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동족에게 잔인함을 행하였다. ‘그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들은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암 2:7a). 힘없는 자와 연약한 자는 돌봄의 대상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들을 핍박하였던 것이다. 특별히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כָּרַסוּ בְּרֶגְלָם אֶת-מִצְחֵי הָעֲרֵבִים)라는 표현은 당시 백성들이 약자를 잔인하게 취급했음을 묘사하는 표현이다.¹⁹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כָּרַסוּ דְרָגְתֵי הָעֲנָוִים)라는 표현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잔인함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미스(Gary V. Smith)는 ‘길을 굽게 한다’라는 표현에 법정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권력자들의 약자에 대한 억압으로 이해한다.’²⁰

셋째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죄악이다. 율법에 대한 유다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비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다의 죄악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이는 그들이 야웨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매혹되었음이라’(암 2:4b). 유다의 죄악은 ‘율법’과 ‘율례’와

18 정중호, 「아모스와 예언서 해석」(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56-67; 구자용, “아모스서의 이방민족들에 대한 예언: 심판과 구원의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 (2018), 37-40 참조.

19 Shalom M. Paul, *Amo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80.

20 Gary V. Smith, *윗글*, 257. 헤이즈(John H. Hayes)는 ‘길을 굽게 한다’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정의의 왜곡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John H. Hayes, *Amos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s and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111.

‘거짓’이라는 표현을 통해 포괄적으로 묘사된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죄악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부각하는 것이다. 3가지의 죄악이 강조된다.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암 2:7b). 율법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다(레 20:11-12). 둘째는 사랑의 부재이다. ‘모든 제단 옆에서 그들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암 2:8a). 율법은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주어 약자가 그 옷을 입고 잘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다(출 22:26-27; 신 24:12-13).²¹ 부자에게는 그 옷이 깔개에 불과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지도자의 타락이다.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암 2:8b). 여기에서 신전은 가나안 산당이라고 볼 수 있다.²² 힘없는 자들에게 착취한 포도주를 이방 신전에서 마시며 즐기는 것이다. ‘거짓 것에 매혹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당시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2) 아웨의 주권

아모스 1-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방의 죄악과 비교함으로써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대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웨의 주권은 크게 2

21 쿠틀(Robert B. Coote)은 이 표현을 마르제흐 잔치와 연결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로버트 B. 쿠틀,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우택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63-66 참조. 원제는 Robert B. Coote,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22 박철우, 「아모스·오바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14-115.

가지로 강조되었다.

첫째로 열방의 죄악과 심판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야웨의 주권이 강조된다. 열방을 심판할 주권이 야웨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2가지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야웨의 결단과 관련된 표현이다. ‘누구의 서너 가지 죄(עֲוֹנוֹ)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암 1:3aβ, 6aβ, 9aβ, 11aβ, 13aβ; 2:1aβ, 4aβ).²³ 7개의 열방을 각각 나열하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לֹא אֲשִׁיבֶנְהוּ)라는 1인칭 표현을 통해 야웨께서 죄악을 심판하는 권한이 있음을 강조한다.²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것을 야웨께서 행하신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야웨의 주권적 심판이 강조된다. 다른 하나는 야웨가 심판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것도 1인칭으로 묘사된다. ‘내가 누구에게 불을 보내리라’(חַתִּי אֵשׁ בְּ... אֲשֶׁר) 암 1:4a, 7a, 10a, 12a; 2:2a, 5a)와 ‘내가 어디에 불을 놓으리라’(אֵשׁ אֲנִי הֹצֵאתִי) 암 1:14a)는 표현은 야웨가 심판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처럼 이러한 공통적인 표현이 7번이나 사용되어 야웨의 주권을 부각하는 것이다. 또한 야웨의 주권은 개별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강조되는데, 이것을 위해 6개의 1인칭 표현이 열거된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리라’(שֹׁבְרֵתִי) 암 1:5aα). ‘내가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리라’(הַכְרַתִּי) 암 1:5aβ).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끊으리라’(הַכְרַתִּי) 암 1:8aα). ‘내가 에그론을 치기 위해 나의 손을 돌이키리라’(הֲשִׁיבוֹתִי) 암 1:8bα). ‘내가 그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리라’(הַכְרַתִּי) 2:3a). ‘내가 모든 지도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אֶהְרֹגֵם) 2:3b). 이처럼 다양한 1인칭 표현을 통해 야웨께서 심판의 주권자임이 강조된다.

23 עֲוֹנוֹ(죄사/죄)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Hans Walter Wolff, *위글*, 152-153 참조.

24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Vol.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200-201.

둘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은혜와 심판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야웨의 주권이 강조된다. 은혜와 관련하여 볼 때 야웨의 주권은 아모리를 멸하여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했다는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 진멸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내어 …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노라’(암 2:9-10). 여기에서 ‘내가 멸하였다’(אָנְכִי הִשְׁמַדְתִּי), ‘내가 진멸하였다’(וְאֲשַׁמְדֶּה)와 ‘내가 이끌어 내어 … 차지하게 하였다’(לְרַשְׁתִּי … אָנְכִי הֵעֲלִיתִי)와 같은 1인칭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한다. 야웨께서 아모리를 손수 멸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모리는 강력한 족속으로 묘사된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이 크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도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아모리가 강력할지라도 야웨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심판과 관련하여 야웨의 주권을 살펴보면 이러한 야웨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야웨께 불순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암 2:13a). 특별히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אָנְכִי מְעִיֵּם תַּחְתִּיכֶם)는 1인칭 표현을 통해 야웨가 심판의 주체가 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는 이어지는 7개의 표현을 통해 한 번 더 강화된다(암 2:14-16). ‘빨리 달음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 ‘용사도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다.’ ‘말 타는 자도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용사 가운데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기에 열거된 7개의 대상은 능력자이지만 그럼에도 야웨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웨의 주권적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강조이다.

2) 아모스 3-4장: 심판의 정당성과 야웨의 주권

아모스 3-4장은 아모스서의 심판의 메시지의 제2단계를 구성한다.²⁵ 특별히 제2단계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심판이 정당함을 야웨의 주권과 더불어 강조한다. 제1단계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면, 이제 제2단계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야웨의 심정을 변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제2단계는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사실로 시작된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 희만을 알았다'(암 3:2b).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고 보호했음에도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앞에 배치한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판의 정당성

아모스 3-4장에서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은 2개의 형식으로 강조된다. 첫째로 심판의 정당성이 인과율에 기초한 수사적 질문을 통해 강조된다(암 3:3-6). 이것은 의문사 하(ה)와 일상적인 삶이 연결된 5개의 예시를 통해 묘사된다(암 3:3-5).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그들이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הִלְכִי 3절). '사자가 그에게 먹잇감이 없는데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הִשְׁאִי 4a절).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그의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הִיִּתִי 4b절). '땃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의 땃에 걸리겠느냐'(הִתְפַּל 5a절).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데 땅으로부터 땃이 튀어 오르겠느냐'(הִיִּעֲלֶה 5b절). 결과에는 이유가 있듯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유 없이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웨께서 악해서 혹은 사

25 여기에서는 아모스 3-4장과 5-6장을 도입 문구('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3:1; 5:1)와 메시지의 차이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심판 선언'에 초점을 맞춘다.

량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5개의 인과율 외에 ‘나의 주 야웨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라는 표현을 통해 결코 경고 없이 야웨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심판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의 심판이 정당함을 강조한다.²⁶

둘째로 심판의 정당성이 야웨의 열심과 백성들의 배신 구조를 통해 강조된다(암 4:6-11). 야웨께서 다양한 경고를 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야웨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야웨의 열심과 백성들의 배신은 ‘1인칭으로 구성된 야웨의 경고 + 5번의 동일한 문구’(6b절, 8b절, 9b절, 10bβ절, 11b절)를 통해 강조된다. ‘내가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다(אֲנִי נָתַתִּי ... חֶסֶד לָחֶם)’.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וְלֹא-שָׁבַתֶם עָרִי)’(6절). ‘내가 비를 멈추어 내리지 않게 하였다(אֲנִי מָנַעְתִּי מִכֶּם אֶת-הַגֶּשֶׁם ... לֹא אֶמְטִיר)’.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וְלֹא-שָׁבַתֶם עָרִי)’(7-8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הִכִּיתִי אֶתְכֶם בְּשֶׁדֶפּוֹן)’.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וְלֹא-שָׁבַתֶם עָרִי)’(9절).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내고(בְּחֹרֵיכֶם) ... 내가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הִרְגֹתִי בְּחֶרֶב וְהָרַגְתִּי בְּחֶרֶב)’.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וְלֹא-שָׁבַתֶם עָרִי)’(10절).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הִפַּכְתִּי בְכֶם) ...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וְלֹא-שָׁבַתֶם עָרִי)’(11절). 야웨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먹거리를 떨어지게 하고, 물이 부족하게 하고, 심지어 전염병

26 조휘,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아모스서 원전연구 및 주해」(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1), 145; 박철우, 윗글, 143; 김태훈, 「사자의 부르짖음: 예언자 아모스의 선포와 삶」(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2), 96-97.

과 칼을 보내 청년들을 죽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였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야웨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배신을 5번이나 열거하여 야웨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정당함을 변호하는 것이다.²⁷ 이런 점에서 아모스 3-4장은 제2단계로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2) 야웨의 주권

아모스 3-4장에서 야웨의 주권은 2가지 형태로 강조된다. 하나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신탁(암 3:9-4:3)을 통해, 다른 하나는 찬양시(암 4:13)를 통해 강조된다. 첫째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신탁을 살펴보면 3종류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 묘사된다(암 3:9-4:3).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사마리아 궁궐에 거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이다(암 3:9-12). 이들은 ‘그들의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10b절)로 묘사된다. ‘궁궐’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들이 왕이나 왕족과 관련된 고관들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암 2장) 일반 부자나 지도자와 관련된 죄악과 심판을 언급했다면, 여기에서는 궁궐이라는 표현을 통해 왕과 고관들의 죄악과 심판을 언급한다. 야웨는 이들을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는 자들’(10a절)로 평가하며 대적을 통해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그들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11절). 왕과 고관들과 같은 최고의 지도자를 심판한다는 표현을 통해 주권이 야웨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별히 12절의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라는 표현은 사마리아 지도자들에 대한 야웨의 심판이 철저하게 행해진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27 Daniel J. Simundson,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188-191.

심판의 대상은 벨엘에 거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다(암 3:13-15). 야웨께서 종교 중심지인 벨엘의 제단과 각종 건물(겨울 집, 여름 집, 상아 집, 큰 집)을 파괴하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야웨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보응하는 날에, 내가 벌하리라’(암 3:14a-bα). 1인칭 표현 ‘내가 보응하다’(אֶנְכִּי)와 ‘내가 벌하리라’(אֶנְכִּי)와 같은 표현을 통해 야웨께서 심판의 판단자이며 심판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정치적 중심지인 사마리아를 심판했던 야웨께서 이제 종교적 중심지인 벨엘도 심판한다는 것이다.²⁸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산의 암소들이다(암 4:1-3). 이들은 사마리아와 벨엘의 지도자들의 부인들인데,²⁹ 야웨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말하는 여인들로 묘사된다. 한마디로 약자를 억압하며 술을 즐기는 타락한 여인들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대적을 보내 이들을 끌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암 4:2).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를 심판하는 야웨께서 그들의 부인들도 심판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야웨의 주권은 찬양시를 통해 강조된다(암 4:13).³⁰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과 심판할 능력이 있는 주권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아모스 3-4장의 마지막에 찬양시가 배치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야웨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웨의 주권적 능력은 3개의 분사를 통해 강조된다(암 4:13).³¹ 첫째는 야웨의 창조 능력인데, ‘그는 산들을 짓고,

28 Hans Walter Wolff, *윗글*, 207.

29 위의 책, 207.

30 Shalom M. Paul, *윗글*, 152-153.

31 조휘, *윗글*, 205-206.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וּבְרָא רוּחַ) וְיֹצֵר הָרִים 13aa³⁻⁶)으로 묘사되고, 둘째는 야웨의 선제적 계시인데, '그는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알리시는 분'(מִינִיד לְאָדָם מִה־שָׁחַח) 13aa⁷⁻⁹)으로 묘사되고, 셋째는 야웨의 심판 능력인데, '그는 아침을 어둡게 만들고, 높은 땅을 짓밟는 분'(אָרֶץ עַל־בְּמֹתַי דָּרָךְ 13aa¹⁰⁻¹⁵)으로 묘사된다. 야웨의 창조 능력과 심판 능력을 통해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강조하고, 야웨의 선제적 계시를 통해 심판 이전에 야웨께서 그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야웨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먹거리를 떨어지게 하고, 물이 부족하게 하고, 심지어 전염병과 칼을 보내고, 성읍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야웨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아모스 5-6장: 심판 선언과 야웨의 주권

아모스 5-6장은 아모스서의 심판의 메시지의 제3단계를 구성한다. 제3단계는 이스라엘의 심판 선언을 야웨의 주권과 더불어 강조한다.³² 이스라엘의 다양한 죄악을 열거하면서도 초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에 맞추어져 있다. 제1단계로 아모스 1-2장에서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함이 열방과의 비교를 통해 강조되었고, 제2단계로 아모스 3-4장에서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이 강조되었다면, 이제 제3단계로 아모스 5-6장은 이스라엘의 심판 선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스라

32 최인기도 아모스 5-6장의 역할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한다. "1-2장이 아모스서의 서문부로서 '야웨의 심판 의지'라는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며, 3-4장이 논증부로서 그 주제에 대해 논증의 주제를 제시하고 ... 5-6장은 이 논증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는 점이다." 최인기, "아모스서의 문학적 구조와 문학단위 분할의 문제", 「구약논단」 1집 (1999), 84.

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모스 5-6장에서 다양한 양식과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1) 심판 선언

아모스 5-6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다양한 양식과 표현을 통해 심판 선언을 묘사한다. 첫째로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심판 선언이 묘사된다(암 5:1-3, 16-17).³³ 애가는 죽은 자를 위해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인데, 이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이 죽음에 이르렀음이 선언된다.³⁴ 애가는 아모스 5장 1-3절과 16-17절에서 볼 수 있다.³⁵ 먼저 아모스 5장 1-3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죽음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2-3절). 먼저 2절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2a절). ‘그녀가 자기 땅에 던져졌으나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2b절). 특별히 ‘그녀가 엎드러지다’(פָּלָה), ‘그녀가 던져지다’(נָשְׂתָה)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그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לֹא-תִשָּׂא קוּם),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אֵין מְקַיֵּם אֵין)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 불능을 강조한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야웨의 심판 선언인 것이다. 이것은 3절에서 숫자를 통해 한 번 더 강조된다.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이 남을 것이며, 백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이 남을 것이다’(3절). 적어도 90%의 백성이 살해되는 참혹한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숫자를 통해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애가를 통

33 자세한 논의를 위해 이상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모스’에 대한 고찰: 아모스 5장 1-17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162-164 참조.

34 조휘, 윗글, 220.

35 정중호, 윗글, 105-106.

해 선포하는 것이다. 이제 아모스 5장 16-17절을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심판의 결과로 인한 백성들의 애통을 강조한다. 특별히 **כָּל**(콜/모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온전한 심판을 선포한다.³⁶ ‘모든 광장에서 사람이 울겠고’(16aβ절),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이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고’(16aγ절), ‘모든 포도원에서 사람이 울리라’(17a절).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에서의 애통을 통해 모든 계층이 야웨의 심판의 대상임을 강조한다.³⁷ 야웨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계층도 장소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울음꾼의 부재를 통해 한 번 더 강조된다. ‘그들은 농부를 불러 애곡하게 하리라’(16bα절). 애곡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심판이 모든 장소에 임한다는 선언인 것이다. 애가가 심판 선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³⁸

둘째로 야웨의 날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심판 선언이 묘사된다(암 5:18-20). 야웨의 날을 축복의 날로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그날이 심판의 날임을 강조한다. ‘야웨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18b절).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야웨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다. 야웨의 날 개념을 통해 이스라엘에 임할 야웨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³⁹ 특별히 야웨의 날과 관련하여 아모스는 이날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임을 강조한다.⁴⁰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고,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의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36 도널드 E. 고웬, 「구약 예언서 신학」(차준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74. 원제는 Donald E. Gowan,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37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서울: 성서유니온, 2015), 492-493.

38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78. 원제는 James Limburg, *Hosea-Mica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8).

39 Marvin A. Sweeney, *유태*, 238-239.

40 Henry McKeating, *Amos, Hosea, Mic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46.

같도다’(19절).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야웨의 날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앞에서 애가를 통해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했다면, 여기에서는 야웨의 날 개념을 통해 심판이 불가항력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 이후에 아모스는 한 번 더 야웨의 날의 성격을 밝힌다. ‘야웨의 날은 어둠이 아니냐? 빛이 아니다. 캄캄함이다. 빛남이 없다’(20절). ‘어둠과 빛’, ‘캄캄함과 빛남’이라는 상반된 표현을 통해 야웨의 날에 대해 착각하지 말고, 야웨의 날이 심판의 날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선언인 것이다.

셋째로 포로에 대한 암시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심판 선언이 묘사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죄악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4개의 단락(암 5:10-13, 21-27; 6:1-11, 12-14)에 나타난다. 첫 번째 단락은 포로에 대한 암시이다(암 5:10-13).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너희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11aβ-b절). 이스라엘의 죄악(왜곡, 억압, 탈취, 학대, 뇌물 수수)으로 인해 그들이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이다. 집과 포도원은 삶의 근원인데, 이것들을 온전히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포로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다. 포로에 대한 암시를 통해 야웨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로에 대한 암시는 뒤에 배치된 3개의 단락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두 번째 단락은 포로에 대한 선언이다(암 5:21-27).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27a절). 이스라엘 죄악(정의와 공의의 부재, 우상숭배)으로 인해 야웨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이다. 1인칭 히필 동사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אֶחְבֹּדְנִי)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포로에 대한 선언과 철저한 파괴를 강조한다(암 6:1-11). 이스라엘의 죄악(자만, 살인과

폭력, 사치, 나태와 안일, 무관심)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모든 거주지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포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라’(7a 절). ‘내가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넘기리라’(8b 절). ‘앞서 사로잡히리라’와 ‘대적에게 넘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스라엘에 임할 야웨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포로에 대한 선언은 살상과 파괴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한 번 더 보강된다. ‘만약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을지라도 그들은 죽으리라’(9절). ‘보라 야웨께서 명령하시므로 큰 집이 타격을 받아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지리라’(11절).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심판의 정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락은 포로에 대한 암시 및 대적에 의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파괴와 학대를 강조한다(암 6:12-14). 이스라엘의 죄악(정의와 공의의 부재, 허무한 것을 기뻐함, 자만)으로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소에 대한 묘사를 통해 심판의 광대함과 철저함이 강조된다. ‘보라 내가 …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14a 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14b 절).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며, ‘아라바 시내’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다. 이렇게 최북단과 최남단을 언급하여 야웨의 심판이 모든 장소에 미침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이 대적으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학대를 당한다는 선언인 것이다.⁴¹

(2) 야웨의 주권

야웨의 주권은 특별히 아모스 5장에서 2가지 양식으로 강조된다. 하나는 권면을 통해 야웨의 주권이 강조된다(암 5:4-6, 14-15). 먼저 아

41 박철우, 윗글, 225.

모스 5장 4-6절을 살펴보면, 이 단락은 2개의 권면으로 시작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4b절). ‘너희는 야웨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6a절). 이 2개의 권면은 야웨에게 살리는 권한이 있음을 강조한다. 야웨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백성들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벰엘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아가 헛된 것들을 의지하였다. 야웨의 주권을 의지하기보다는 종교와 정치적 거래로 발생하는 힘과 이득을 의지하였다. 그리하여 야웨는 부정어를 3번이나 반복 사용하여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벰엘을 찾지 말고(בֵּית־אֵל וְבַרְרָשׁוֹ), 길갈에 들어가지 말고(הַגִּלְגָּל לֹא תִבְאוּ),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וּבְאַרְשֶׁנֶּה לֹא תַעֲבֹרוּ).’ 백성들이 가장 의지했던 장소와의 단절을 통해 진정한 주권이 야웨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⁴²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야웨에게 있으니 더 이상 이러한 장소를 찾지 말라는 권면인 것이다. 아모스 5장 14-15절에서도 권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אוּלַּי**(올라이/혹시)라는 표현이다. ‘백성들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야웨께서 함께하시고’(14절), ‘백성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면, 혹시(**אוּלַּי**) 야웨께서 야곱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15절). 여기에 나타난 ‘혹시’라는 표현에는 야웨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함축되어 있다.⁴³ 최선을 다해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면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야웨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42 디글라스 스투어트, *읽글*, 618-620.

43 Hans Walter Wolff, *읽글*, 251.

44 박철우는 ‘혹시’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혹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지요 징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이 모든 역사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한이며 그 모든 뜻을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철우, *읽글*, 196-197.

한마디로 야웨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찬양시를 통해 야웨의 주권이 강조된다(암 5:7-9). 앞에서 야웨를 찾으면 살 수 있다고 강조하였기에 이제 야웨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야웨의 주권이 심판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강조된다. 심판을 선포하신 분이 심판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야웨의 4개의 능력이 강조된다.⁴⁵ 첫째로 야웨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8a절)으로 묘사된다. 묘성과 삼성은 별들을 대표하며,⁴⁶ 하늘의 군대를 상징한다. 야웨께서 하늘의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둘째로 야웨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8a절)으로 묘사된다. ‘사망의 그늘과 아침’, ‘낮과 밤’이라는 상반된 표현을 사용해 야웨께서 구원자와 심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로 야웨는 ‘바닷물을 불려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8b절)으로 묘사된다. 노아의 심판과 관련지어 보면 야웨에게 심판의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야웨는 ‘강한 자에게 패망이 임하게 하시는 분’(9a절)으로 묘사된다. 야웨께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심판자라는 것이다. 앞의 심판 선언과 연결하면 심판을 선언하신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찬양시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다.

4) 아모스 7장 1절-9장 10절: 심판의 불변함과 야웨의 주권

아모스 7장 1절-9장 10절은 5개의 환상(암 7:1-3, 4-6, 7-9; 8:1-3; 9:1-4)과 아모스의 자서전적 이야기(암 7:10-17)와 아모스의 설교 및 신탁(암 8:4-14; 9:5-10)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모스서의 심판 메시지의 제

45 류호준·주현규, 「아모스서: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서울: 새물결플러스, 223), 311-314.

46 김근주, 윗글, 478-479.

4단계를 구성한다. 앞의 3개의 단계에서 이스라엘 최악의 심각성으로 인해 야웨께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면, 이제 제4단계에서는 심판의 최종선언을 통한 심판의 불변함이 강조된다.⁴⁷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야웨의 확고함이 환상 양식을 통해 강조된다. 신탁 양식으로 부족한 심판에 대한 묘사가 5개의 환상 양식을 통해 강조되는 것이다. 5개의 환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판의 불변함

아모스 7장 1절-9장 10절의 5개의 환상은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앞의 2개의 환상(암 7:1-3, 4-6)은 야웨의 심판 철회를 강조하고, 뒤의 3개의 환상(암 7:7-9; 8:1-3; 9:1-4)은 야웨의 심판 실행을 강조한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심판 철회를 강조하는 메뚜기 환상(암 7:1-3)과 불 환상(암 7:4-6)을 살펴보자. 이 2개의 환상은 심판 철회를 강조하는데, 왜 심판 선언을 강조한 제3단계의 바로 다음에 배치되었는가? 여기에 놓여 이 2개의 환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앞의 3개의 단계와 연결지어 보면, 이 2개의 환상은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야웨께서 막무가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분이 아님을 2개의 환상 철회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2개의 환상의 구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야웨께서 메뚜기와 불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자, 아모스는 야웨께 심판의 철회를 간구한다. ‘주 야웨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어떻게 서리이까’(2aβ-b절). ‘주 야웨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5절). 야곱이 미약하여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는 아모스의 간구이다. 야웨

47 김태훈, 윗글, 214.

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하소연인 것이다. 이러한 간구를 듣게 된 야웨는 온전히 그의 뜻을 철회한다. 이것은 2개의 동일한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야웨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3a절, 6a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3b절) 혹은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6b절). 뜻을 돌이킨 야웨께서 메뚜기 재앙도 불 재앙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전의 결정을 온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진정한 간구가 있으면 혹은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제2단계에서 신탁을 통해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야웨의 진실함과 자비로움을 보여주었다면, 여기에서는 환상을 통해 한 번 더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진실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로 심판 실행을 강조하는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환상, 제단 곁에 서신 주님 환상을 살펴보자. 이 3개의 환상은 심판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데, 특별히 심판의 불변함을 강조한다.⁴⁹ 이스라엘이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 5:4)는 야웨의 권면에 불순종하고 벨엘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아간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3개의 환상을 통해 심판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3개의 환상은 심판의 메시지를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암 7:7-9)은 심판에 용서가 없음을 강조한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8b절). 다림줄로 건물이 똑바로 섰는지를 확인하듯이 이스라엘의 치우침을 확인하여 심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의 2개의 환상과는 달리 ‘내가 다시

48 Hans Walter Wolff, *유허*, 298.

49 최중원, “이모스 8-9장에 나타난 회망의 신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66집 (2017년 12월), 133.

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לוּ עָבַר עוֹד לֹא-אֹסִיף 8bβ절)는 야웨의 결단이 강조된다. 과거에는 용서했지만,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야웨의 심판에 대한 확고함이다.⁵⁰ 특별히 עוֹד(오드/다시는)를 사용해 심판의 불변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환상(암 8:1-3)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강조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לוּ עָבַר לֹא-אֹסִיף אֶל-עַמִּי יִשְׂרָאֵל 2b절). 여기에서는 קָץ(케츠/끝)라는 단어를 사용해 앞에서 강조한 '심판의 선언'에 대한 확고함을 보강한다. 심판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판의 결과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끝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קָץ(카이츠/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קָץ(케츠/끝)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여름이 지나면, 곧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종말을 목격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언어유희이다. 여기에서도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야웨의 결단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통해 한 번 더 심판의 확고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환상인 제단 곁에 서신 주님 환상(암 9:1-4)은 남은 자의 심판을 강조한다. 앞에서 용서가 없는 끝이 이르렀음을 강조했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남은 자의 심판까지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특별한 표현이 사용된다.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1aβ-b절).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심판의 확고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야웨의 확인인 동시에 심판에 불변함이 없다는 강조인 것이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불변성은 한 번 더 5개의 특정 장소에서의 야웨의 열정적인 심판 행위와 연결되어 강조된다. '그들이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취하여 낼 것이다'(2a절).

50 James Luther Mays, *Amo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9), 132-133.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취하여 내릴 것이다’(2b절).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 그들을 취할 것이다’(3a절).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3b절). ‘그들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그들을 살육하게 할 것이다’(4a절). 1인칭으로 묘사된 야웨의 심판과 특정 장소가 결합된 표현을 5번이나 반복 사용하여 백성들이 야웨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불변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5개의 환상은 아모서의 뒷부분에 놓여 앞에서 전개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강하며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2) 야웨의 주권

야웨의 주권은 아모스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암 7:10-17)와 아모스의 설교와 신탁(암 8:4-14; 9:5-10)에서 강조된다.⁵¹ 첫째로 아모스 7장 10-17절은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절대형 부정사를 사용해 야웨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것은 2개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암 7:11)는 표현이다. 여기에 절대형 부정사 ‘반드시 사로잡혀 떠나리라’(כָּלֵב, כָּלֵב)가 사용된다.⁵² 야웨의 심판에 절대로 돌이킴이 없다는 야웨의 주권적 선언인 것이다. 야웨의 주권이 심판의 불변함과 어우러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앞드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51 스투어트(Douglas Stuart)는 아모스 9장 1-10절을 아모스의 5번째 환상(1-4절), 찬양시(5-6절), 독립적인 단락(7-10절)으로 나누었다. 더글라스 스투어트, 윗글, 691-692.

52 Shalom Paul, 윗글, 240.

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17절)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야웨는 아
 마샤와 그의 가족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말한다. 야웨의 말씀에 불순종
 한 거짓 선지자를 야웨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17bβ절)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반복은 야웨의 심판에 결코 변함이 없다는
 야웨의 주권적 선포인 것이다.⁵³ 앞에서 환상을 통해 심판에 변함이 없
 다는 확고함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야웨의 주권 강조와 함께 심
 판의 절대 불변함을 부각하는 것이다.

둘째로 아모스 8장 4-14절은 설교 형식으로 시작하는 심판 신탁
 인데(암 8:4-14),⁵⁴ 특별히 죄인들의 심판과 관련하여 야웨의 주권을 강
 조한다. 당시 죄인들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거짓 저울로 사람을 속이고,
 약자들을 신 한 켈레로 매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묘사된다. 야
 웨는 이들을 심판하는 주권자라는 것이다. 특별히 9-10절은 야웨의 주
 권적 능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
 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
 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야웨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주권자, 절기의 기쁨과 노래를 애통으로 바꾸는 주권자, 죽음
 과 파멸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베를 두르고 머리를 밀고 애통하게 하
 는 주권자로 묘사된다.⁵⁵ 결국 야웨의 이러한 주권적 능력으로 인해 죄인
 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이 곤고한 날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53 더글라스 스튜어트, 윗글, 667-672.

54 조휘, 윗글, 419-451.

55 김근주, 윗글, 559-560.

셋째로 아모스 9장 5-10절은 야웨의 주권을 찬양시와 설교를 통해 강조한다.⁵⁶ 먼저 5-6절의 찬양시를 살펴보면, 야웨의 주권은 2가지의 묘사를 통해 강조된다.⁵⁷ 하나는 야웨를 심판자로 묘사한다. ‘주 만군의 야웨가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하는 모든 자로 애통하게 하신다’(5a절). 다른 하나는 야웨를 창조자로 묘사한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의 이름은 야웨이다’(6절). 앞에서 환상을 통해 심판의 불변함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찬양시를 통해 야웨께서 심판을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창조자임을 강조한다. 야웨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야웨의 주권을 심판의 불변성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야웨의 주권은 7-10절에서 3개의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한 번 더 강조된다.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8aβ절).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9bβ절). ‘내 백성 중 모든 죄인이 칼에 죽으리라’(10a절). ‘멸하다’, ‘한 알갱이도’, ‘모든 죄인’과 같은 표현을 통해 야웨의 주권적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강조한다. 심판의 확고함과 불변성을 야웨의 주권과 관련지어 강조하는 것이다.

5) 아모스 9장 11-15절: 구원 신탁과 야웨의 주권

아모스 9장 11-15절은 아모스 전체 메시지의 제5단계를 구성한다. 제1단계-제4단계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메시지의 차이로 인해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5개의 단계적 관점에서 보면 이 구

56 Hans Walter Wolff, *윗글*, 337-349.

57 Marvin Sweeney, *윗글*, 270-271; 박철우, *윗글*, 273-274.

원의 메시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메시지이다.⁵⁸ 제1단계는 열방과의 비교를 통해 이스라엘 최악의 심각성과 야웨의 주권을 강조했고, 제2단계는 최악의 심각성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의 필연성/정당성과 야웨의 주권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3단계는 심판의 당연함을 선언하면서 야웨의 주권을 강조했다, 제4단계는 환상 양식을 통해 심판의 확고함/불변성과 야웨의 주권을 강조했다. 이처럼 4개의 단계가 야웨를 마치 은혜가 부족한 주권자인 것처럼 강조하였다. 야웨의 주권이 오직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야웨에 대한 인식에 치우침이 발생한 것이다. 아모스 당시 백성들에게 야웨가 부정적인 주권자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제5단계에서 아모스(혹은 최종 편집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아모스 9장 11-15절의 구원/회복 신탁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⁵⁹ 첫째는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11a절). ‘그들이 예돔의 남은 자와 모든 열방을 소유하리라’(12aα절). 남북의 분열과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야웨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출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13aα-b절). 지속적인 추수와 지속적인 파종을 통해 풍성한 경작이 있도록 야웨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셋째는 귀환과 견고

58 스투어트는 포로에 대한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이미 여러 번(암 4:2-3; 5:11, 27; 6:7; 7:11, 17; 9:4) 언급되었기에 아모스 9장 14-15절에 언급된 포로에 관한 내용이 ‘후대 혹은 남쪽 유다’에서 기원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글라스 스투어트, 윗글, 703-704. 아모스 9장 11-15절의 후대의 편집에 관한 다양한 주장을 위해 Shalom Paul, 윗글, 288-290 참조.

59 조휘, 윗글, 484; 박철우, 윗글, 281-282. 자세한 논의를 위해 최중원, 윗글, 135-142 참조.

함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라’(14aα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15bα절). 강대국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야웨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뽑히는 일이 없도록 지켜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통해 야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3. 결론

아모스서(총 146절)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데(141절), 특이하게도 열방에 대한 심판 신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전에 5개의 환상을 열거하고, 단지 5개의 절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구원 신탁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구성과 배치는 아모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구성을 통해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야웨의 주권을 5개의 단계로 전개한다. 이러한 전개를 통해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점층적으로 주장하며, 동시에 야웨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주권적 능력을 강조한다.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면 제1단계는 열방의 죄악과의 비교를 통해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성과 열방 및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야웨의 주권적 능력을 강조하고, 제2단계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과 이와 관련된 야웨의 주권을 강조한다. 제3단계는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 선언과 이와 관련된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고, 제4단계는 환상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불변성과 이와 관련된 야웨의 주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앞의 4개의 단계에서 발생한 야웨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및 구원의 신탁을 야웨의

주권적 능력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볼 때 아모스서의 구조는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심판 신탁과 아웨의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자용, “아모스서의 이방민족들에 대한 예언: 심판과 구원의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 (2018), 25-55.
-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 (서울: 성서유니온, 2015).
- 김태훈, 「사자의 부르짖음: 예언자 아모스의 선포와 삶」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2).
- 더글라스 스트루어트, 「호세아-요나」 (김병하 역), (서울: 솔로몬, 2011). 원제 Douglas K. Stuart, *Hosea-Jonah* (WBC 31;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7).
- 도널드 E. 고웬, 「구약 예언서 신학」 (차준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원제 Donald E. Gowan,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로버트 B. 쿠틀,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우택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원제 Robert B. Coote,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 류호준·주현규, 「아모스서: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 (서울: 새물결플러스, 223).
- 박철우, 「아모스·오바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알렌 R. 귄터, 「호세아·아모스」 (임요한, 최태선 역), (논산: 대장간, 2018). 원제 Allen R. Guenther, *Hosea, Amos* (Waterloo: Herald Press, 1998).
- 요르 예레미아스, 「아모스」 (채홍식 역), (서울: 성서와함께, 2006). 원제 Jörg Jeremias, *Der Prophet Amo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 이상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모스’에 대한 고찰: 아모스 5장 1-17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155-180.
- 정중호, 「아모스와 예언서 해석」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원제

- James Limburg, *Hosea-Mica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8).
- 조휘,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아모스서 원전연구 및 주해」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11).
- 최종원, “아모스 8-9장에 나타난 희망의 신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66집 (2017년 12월), 119-149.
- 최인기, “아모스서의 문학적 구조와 문학단위 분할의 문제”, 『구약논단』 1집 (1999), 69-93.
- Andersen, Francis I. and David N. Freedman, *Amo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89).
- Birch, Bruce C., *Hosea, Joel, and Amo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Dorsey, David A., “Literary Architecture and Aural Structuring Techniques in Amos”, *Biblica* 73 (1992), 305-330.
- Hayes, John H., *Amos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s and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 Harper, William 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Amos and Hosea* (Edinburgh: Clark, 1905).
- Koch, Klaus, *Amos: untersucht mit den Methoden einer strukturalen Formgeschichte 1, 2* (Kevelaer: Butzon & Bercker, 1976).
- Limburg, James, “Sevenfold Structures in the Book of Amo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 (1987), 217-222.
- Lipiński, Edward, “מֹכֵר”,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Vol. VI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291-296.
- Mays, James Luther, *Amo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9).
- McKeating, Henry, *Amos, Hosea, Mic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Noble, Paul R., “The Literary Structure of Amos: A Thematic Analys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4 (1995), 209-226.
- O’Connell, Robert H., “Telescoping N+1 Patterns in the Book of Amos”, *Vetus Testamentum* 46 (1996), 56-73.
- Paul, Shalom M., *Amo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Ringgren, Helmer, “סָנַר”,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Vol. X* (Grand

-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148-152.
- Simundson, Daniel J.,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Smith, Billy K. and 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 Smith, Gary V., *Hosea, Amos, Mic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Vol.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Van der Wal, Adri, "The Structure of Amo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6 (1983), 107-113.
- Weiser, Artur, *The Old Testament: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1).
- Wolff, Hans Walter, *Joel and Amo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검색어

아모스서의 구조, 아모스서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심판 신탁, 아웨의 주권, 5개의 환상

[ABSTRACT]

The Structure and Message of the Book of Amos: Focusing on Israel's Judgment and Yahweh's Sovereignty

Rae-Yong Kim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message of the book of Amos, focusing on the judgment of Israel and the sovereignty of Yahweh. To this end, the book of Amos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based on its content and style, and the content, structure, and expression of each paragraph are examined to arrive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book of Amos (146 verses in total) focuses on the judgment of Israel (141 verses), and uniquely begins with an oracle of judgment on the nations, lists five visions, and concludes with an oracle of salvation for Israel consisting of five verses. This structure and arrangement are unique to Amos. Through this unique structure, the book of Amos develops the judgment of Israel and the sovereignty of Yahweh in five stages. Through this development, the book of Amos gradually asserts the inevitability of the judgment of Israel, while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the sovereign power of Yahweh for judgment and salvation. When examining each stage, the first stage emphasizes the seriousness of Israel's sins and Yahweh's sovereign power to judge the nations and Israel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ins of the nations. The second stage emphasizes the legitimacy of Yahweh's judgment due to Israel's sins and Yahweh's sovereignty related

www.kci.go.kr

to it. The third stage emphasizes the declaration of judgment that will come upon Israel and Yahweh's sovereignty related to it. The fourth stage emphasizes the immutability of Yahweh's judgment on Israel and Yahweh's sovereignty related to it through a visionary form. Finally, the fifth stage describes the oracle of restoration and salvation for Israel as Yahweh's sovereign power in order to improve the negative image of Yahweh that arose in the previous four stages. In this way,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Amos can be divided into five paragraphs, and the message of the Book of Amos can be said to focus on the oracle of Israel's judgment and Yahweh's sovereignty.

key words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Amos, the message of the book of Amos, the judgment oracles of Israel, the sovereignty of Yahweh, the five visions

투고일: 2025년 07월 17일

심사일: 2025년 08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8월 14일

www.kci.go.kr